

이달 1~20일 수출·수입 모두 ↑

수출 313억 달러로 전년보다 11.1%

수입 280억으로 전년보다 1.3% 증가

반도체·승용차·무선통신기기 등서 ↑

11월 1~20일 수출 313억 달러, 수입 280억 달러(통관기준 잠정치)로 전년 동기대비 수출 11.1%(31억2000만 달러), 수입은 1.3%(3억6000만 달러)가 증가했다.

23일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1월 1~20일 연간 수출 누계는 4469억 달러, 수입 410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수출은 7.0%(337.6억 달러) 감소했고 수입은 8.1%(359억 6000만 달러)가 줄었다.

무역수지는 이달 20일 간 33억 달러, 연간 363억3000만 달러 흑자를 기록 중이다.

이달 20일 간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1.9%), 승용차(11.9%), 무선통

신기기(36.2%)등은 증가한 반면 석유제품(48.2%), 컴퓨터주변기기(1.9%), 가전제품(3.1%)등은 감소했다.

주요 교역국 중 중국(7.2%), 미국(15.4%), EU(31.4%)로의 수출은 증가했으나 일본(7.2%), 중동(21.8%), 호주(15.2%) 등은 감소했다.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반도체(26.4%), 기계류(11.7%), 정밀기기(15.3%) 등은 증가했고 원유(46.9%), 무선통신기기(0.2%), 가스(30.2%) 등은 감소했다.

또 중국(16.7%), EU(31.7%), 일본(16.7%)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늘었고 미국(19.5%), 중동(43.5%), 베트남(7.9%) 등은 감소했다. /뉴시스

금융상담 역량 강화 고객 상담률 도입·운영

농협은행 전북본부 '위드토크'

태블릿 PC로 고객과 공유 가능

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기요)가 금융상담 역량 강화를 위해 고객 상담률 위드토크(With-Talk)를 도입·운영중이라고 23일 밝혔다.

농협은행 위드토크(With-Talk)는 금융상담 시 대고객 설명·이해·판단이 원활하도록 ▲고객 관점 ▲시각화 ▲시뮬레이션 ▲금융 비교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이해도를 높이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금융상담률이다.

현재 운영중인 전자창구(PPR)시스템을 통해 지점에 비치된 태블릿 단말기로 상품 가입시 예상 이자, 대출 상환 방법의 주요 차이, 우대금리별 비교를 시각화해 고객에게 제공한다.

기존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뤄졌던 방식에서 벗어나 태블릿 PC로 고객과 직원이 구체적인 수치와 차트를 통해 비교·공유함으로써 고객 만족도와 금융상담의 질이 높아진다는 장점이 있다. /김윤상 기자



생태계 교란식물

친환경 액비·퇴비로

지리산 전북사무소

재활용 추진 '주목'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김효진)는 생태계교란식물과 야영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기름을 액비와 퇴비로 재활용(Upcycling), 생태계 건강성 향상 및 국민 보건의식 증진에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매년 350kg정도 버려지는 애기수영, 돼지풀 등 생태계교란식물을 친환경액비로 가공해 2차 확산을 방지하고, 야영장에서 버려지는 음식물 기름 약 8,000L를 톱밥을 사용한 설거지를 통해 친환경퇴비로 새롭게 탄생시켰다.

생산된 액비와 퇴비는 국립공원 훼손지 복원에 필요한 식물 모종을 키우고, 훼손지 복원에 식재된 식물의 빠른 정착을 위해 화확비료 대신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는 지역 농가에 배부하여 화확비료 사용 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줄이는데 노력하고 있다.

지원보전과 김철순 과장은 "새 활용된 액비와 퇴비가 지리산국립공원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친환경 야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시민 필요 혜택 '듬뿍'

전북은행, 시 특화 '내사랑 전주카드' 출시
전주사랑 상품권 출시 기념 삼색 서비스 혜택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시 더 높은 캐시백 적립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이 전주시민에게 꼭 필요한 혜택을 담은 신상품 "내사랑 전주카드"를 오늘 출시한다.

내사랑 전주카드는 전주시 지역화폐 '전주사랑 상품권' 출시를 기념해 전주시내 특화된 삼색(三色) 서비스 혜택과 생활 밀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주시민이 일상생활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시내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시 더 높은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내사랑 전주카드의 삼색(三色)서비스는 전주시의 맛과 멋을 담은 서비스로, '맛' 서비스는 전주시내 음식점에서 사용시, '멋' 서비

스는 전주 동물원과 전주 경기전에서 사용시, '흥' 서비스는 전북현 대모터스PC, 드림랜드, 한옥레일바 이코에서 사용 시와 전주시내 영화관 현장발권에 한해 캐시백 적립 혜택을 제공한다.

더불어 전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액의 0.3%가 캐시백 적립되고, 전주시 소재 가맹점 및 생활 밀착 서비스(철도, 고속버스, 아파트 관리비, 도시가스)에서 사용시 두 배인 0.6%의 캐시백이 적립된다.

전북은행은 '내사랑 전주카드' 비대면(온라인)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연회비 100% 캐시백 이벤트도 한

무진장 농어촌공, 사업비 소진 임박

올해 농지은행 예산 69억 중 이달 말 현재 59억 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신교준·사진)는 농지은행 사업 2020년 예산 69억중 11월 말 현재 59억을 집행해 86%를 추진하는 등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지은행은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정책사업으로 세부 집행실적을 살펴보면, ▲농지매입 19억(68%) ▲농지매매사업 5억(13.7%) ▲자금이 어려운 농지소유자의 농지를 임대하여 농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임대수탁사업 169ha(달성) (목표100ha)

▲부채로 위기에 처한 농가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사업 22억(87%)을 집행했고, ▲농지연금 신규가입 16건(107%), ▲과원규모화 13억(117%)을 집행했다.

아울러 청년창업농과 20~30세대 농업인이 농지를 우선적으로 취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교령·질병 등으로 은퇴하고자 하는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전업농육성 대상자에게 임대로 지원해주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했다.

사업비 신청은 농지은행포털로 본인 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무진장지사 농지은행부를 방문하거나 국번 없이 1577-7770에 문의하면 담당자에게 연결돼 유선으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전주시의 자랑 맛, 멋, 흥 상품 서비스
내사랑 전주카드
완성하세요
JB Card
전북은행 카드사업부 관계자는 "전주시의 자랑 맛·멋·흥 삼색(三色) 서비스와 더불어 전주시내 가맹점 및 생활 밀착 서비스 혜택을 탑재해 전주시민의 편의성 증진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고객의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혜택을 담은 카드를 통해 고객에게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경진원, 도시청년 지역상생

직무역량 강화 온라인 교육

전라북도경제통산진흥원(원장 조지훈, 이하 경진원)은 도시청년 지역상생 고용사업에 참여하는 청년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직무역량강화교육을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인해 실시간 화상교육으로 오는 28일부터 12월 7일까지 총 3회에 걸쳐 6시간씩 실시된다. 교육은 신입사원 직장 내 예절 교육, OA교육, 재테크 등 청년 근로자의 직장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했다.

경진원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앞으로 언택트 교육으로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농진청, 27일 서울 코엑스서 가공제품 공모전

'우리 밀·보리로 만들었어요'

코로나19 감염 예방 위해 행사장 내 인원 제한

가정간편식 부문 새로 신설...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

농진청(청장 허태웅)은 (사)한국국제과기능장협회와 함께 오는 27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제4회 우리 밀·보리 이용 아이디어 가공제품 공모전(이하 공모전)'을 연다.

이번 공모전은 '제15회 서울국제식품산업전'과 연계해 수입 농산물 대신 우리 밀·보리와 식량작물을 이용한 새로운 빵이나 과자 및 가정간편식 제품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정부의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 행사장 내 인원 제한하며 온라인 전시관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는 코로나19로 가정에서 손쉽게 조리해 먹을 수 있는 간편식 소비가 크게 늘어난 경향을 반영해 가정간편식 부문을 새롭게 신설했다.

공모전에는 한국국제과기능협회 각 지회의 추천을 받은 회원이 참가하며, 제품 배합표와 제조 공정 등 사전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약 30명이 본선에 오른다. /김윤상 기자

본선에서는 참가자가 출품계획서를 바탕으로 공모전 당일 만들어 온 제품의 우리 농산물 배합비율, 맛, 시장성과 대중성, 상품성과 창의성을 심사한다. 수상작은 최우수상 1점(농림축산식품부장관상), 금상 4점(농진청장상)을 비롯해 총 28점을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다.

한편, 농진청은 곡산 식량작물을 활용해 식품 소비 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가공 제품을 발굴해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행사는 12월 5일에는 (사)대한제과협회와 함께 농진청이 개발한 쌀가루 전용 품종 '가우리2'를 활용한 쌀빵 제조기술 경진대회가 한국국제과학교에서 열릴 예정이다.

농진청 농진청 식량산업기술팀 김정화 팀장은 "곡산 밀·보리 등 다양한 식량작물의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업계와 협업, 새로운 가공제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 '맞손'

국민연금-심평원, 협약 체결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용진)은 지난 20일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성민)과 '행복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교류를 통한 국민과 임직원의 노후준비 지원과 상호 발전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공단은 앞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을 대상으로 노후준비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연금공단의 노후준비서비스 고객을 대상으로 건강, 의료 정보제공 및 안전예방활동 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양 기관은 홍보 사업 지원 및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사업 등에도 서로 협력할 계획이다.

나영희 중앙노후준비센터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이 노후준비서비스 발전을 위해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이어가기를 희망한다"며 "100세 시대 국민의 행복 동반자로서 더 많은 국민이 노후준비를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덕유산리조트 올해 첫 스키장 제설

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부영그룹은 23일 무주군 무주덕유산리조트에서 올해 첫 스키장 제설작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부영그룹 제공)

전북농협, 나눔축산운동·소외계층 복지 지원

전북농협(본부장 박성일)과 동진강낙협(조합장 김두호), 전주김제완주축협(조합장 김경수)은 23일 김제시 금구면사무소(면장 윤상철)를 방문해 '나눔축산운동'의 일환으로 소외계층 복지 증진을 위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갖는다.

이번 전북농협과 동진강낙협 및 전주김제완주축협 임직원들은 금구면사무소를 방문해 TV 및 500만원 상당의 축산물을 전달했다. 요양시설 이용자 등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 위한 취지로 진행했다. 행사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절대 없는 감염병 사태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이지만 축산인들의 정성을 담아 지역 이웃에게 도움이 되고자 후원물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나눔축산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어려운 이웃

과 지역민이 함께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축협의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박성일 본부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시기에 축산인의 정성을 담아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작게나마 정성과 사랑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협의 나눔축산운동은 국민에게 사랑받는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을 만들어 가기 위해 소비자, 농업인,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펼치는 법 축산업계의 자발적인 사회공헌 실천 운동으로 1% 기부·나눔활동, 소외계층 봉사·후원활동, 경종농가 상생협력활동, 지역사회 환경개선활동, 소비자 상호이해 증진활동 등 각종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